

아이돌봄서비스로 양육부담 최소화

익산시, 제33기 아이돌봄미 22일까지 신규 모집 월 평균 450명 이용자... 작년 대비 약 18% 증가

익산시가 안정적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봄미를 모집한다. 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수가 증가함에 따라 제33기 아이돌봄미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10월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수는 월평균 450명으로 지난해 월평균 아동수 380명 대비 약 18%가 증가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임시보육, 등·하원 지원 등 전반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양육 공백 가정과 결혼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아는 본인부담금

의 70%를, 둘째아 이상은 전액을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33기 아이돌보미 지원 자격은 보육교사, 유치원 정교사, 초·중등 교사, 의료인 등 자격증 소지자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다. 아울러 아이돌봄지원업체에서 규정하는 경력사유가 없어야 한다. 신규 아이돌보미 지원자는 22일까지 서류를 준비해 익산시가족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서류 전형 심사, 인·적성검사,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채용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가족센터 누리집(ksan.familynet.or.kr) 또는 전화(063-838-604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증가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맞춰 아이돌보미를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다”며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경력 단절 해소 등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배낭 멘 지구, 초록별 탐험’ 행사 실시

금강미래체험관, 시민들의 친환경 생활 실천 독려... 내달 22일까지

금강미래체험관은 시민들의 친환경 생활 실천 유도 및 탄소중립 도시 구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배낭 멘 지구, 초록별 탐험’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29일까지 금강미래체험관 본관 및 기후변화체험관 등에서 열린다. ‘배낭 멘 지구, 초록별 탐험’은 사람들의 인위적인 활동으로 인해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구가 배낭을 메고 초록별을 찾아 떠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배낭 멘 지구, 초록별 탐험 캠페인’에 참여하면 금강미래체험관 전시관 투어를 통해 금강의 문화와 생태, 미래 기후변화 등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전시관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해 쿠폰을 획득하면 병뚜껑 인형 만들기 및 셔츠 염색, 파우치, 천연 수분크림 만들기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축방 놀이를 비롯해 불링, 제기차기, 보자기 놀이 등 지구사랑

놀이를 즐길 수 있고, 먹거리로 저탄소 샌드위치와 팝콘 등도 제공한다. 또한 행사 기간 중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는 본관 지하교육실에서 팝아트 입사이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가족이 함께하는 탐조 프로그램도 있다. 11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와 4시 30분에 진행된다. 참가하면 어도 및 조류관찰소 일원에서 아름답고 황홀한 가창소리 군무를 만날 수 있다. 금강미래체험관 관계자는 “자연과 공존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자연환경 보존과 기후행동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정책과 생태교육계(☎063-454-5682)로 문의하거나 누리집(https://green.gunsan.go.kr)을 참조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보건소, 가을철 감염병 유행 주의 당부

쯔쯔가무시증·노로바이러스 등 감염 주의...11월 8일 기준 올해 쯔쯔가무시증 환자 17명

군산시보건소는 20일 가을철 및 다가오는 김장철에 유행하는 쯔쯔가무시증과 노로바이러스 감염 등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쯔쯔가무시증은 3급 법정감염병으로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발생하며 물린 자리에 검은 딱지가 생기고 치명률을 높이지 않지만 증상의 강도가 높은 편이다. 최근 군산시 내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1월 8일 기준 올해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17

명으로 전체 환자 중 82.4%가 가을철에 발생했다. 쯔쯔가무시증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농작업 및 야외 활동 시 긴팔, 긴바지, 장갑, 목수건 등을 착용하여 피부 노출 최소화 △풀밭에 앉을 때는 돗자리 사용 △귀가 즉시 옷을 털어서 세탁 △야외활동 후 씻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 다른 가을 유행 전염병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기온이 떨어지는 11월부터 이듬해 봄인 4월까지 많이 발생한다. 특히 11월 발생 급증이

유로 김장철에 소비하고 섭취하는 ‘굴’이 원인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예방수칙은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 △음식 충분히 익혀 먹기 △물은 끓여 마시기 △채소, 과일 등은 깨끗한 물에 충분히 씻어 먹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 금지 등이 있다. 보육시설이나 학교 등에서 환자가 발생했다면, 증상 소실 후 48시간 이상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제한하고 가정에서도 환자와 공간을 구분하여 생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우리아이행복밥상에 식재료 공급

서울 서대문구 중심으로 친환경 농산물 공급 계약 체결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이창환, 이하 군산센터)와 주식회사 우리아이행복밥상(이하 행복밥상)이 지난 19일,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서울시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종료 이후에도 도농 상생의 정신을 실현하고,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 시설에 친환경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군산시는 서울시 은평구와 일대일 협약을 맺고 군산센터를 통해 은평구 어린이집과 공공급식 시설에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의 정책 변화로 내년부터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이 종료된다. 이런 가운데 군산센터는 행복밥상과의 협력을 통해 도농상생의 가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계약으로 군산센터는 서울시 서대문구를 중심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며, 소규모



농업인들과의 상생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군산센터는 앞으로도 공공급식 사각 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공급식 시설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제20회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기념 행사

익산시노인복지관, 300가구에 8만장 연탄·전기매트 등 지원

20일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제20회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기념식’이 열렸다.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은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과 (사)따뜻한반반도사랑의연탄나눔운동 익산지부가 주관하고 KCN금강방송과 이리신광교회가 후원한다. 2005년 처음 시작해 20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은 독거 노인에서 시작해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 대상으로 확대됐다. 이후 지난해까지 100만 장 이상의 연탄과 보일러, 난방유, 전기장판, 온수매트, 식재료 등을 지원하며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연탄 꽃을 피우다’를 주제로 연탄나눔 선포식이 열렸다. 올해는 지역 취약 계층 300가구에 연탄 8만 장과 전기매트, 이불 등 겨울용품 지원하고 오래된 보일러를 교체·설치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20년 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함께 해준 이들에게 감사의 전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평소 이웃사랑을 실천한 유공 시민에게 표창이 수여됐고,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은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경진 익산시의장, 후원 기업들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복지관은 21일 복지관 주차장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휴지, 설탕, 라면 등 생필품을 판매하는 바자회를 진행한다. 판매 수익금은 모두 연탄 구입이나 보일러 교체 등 연탄나눔 사업 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내내 나눔 운동을 꾸준히 운영해줘 감사드린다”며 “하나하나 모인 작은 온기가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힘이 돼 더 많은 분들에게 온기가 전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익산시, 2024년산 공공비축미 1만1511톤 매입

익산시가 11~12월 2024년 공공비축미 1만 1,511톤을 매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매입량 1만1,511톤은 지난해 대비 3,911톤이 증가한 물량으로 가루쌀 1,609톤과 산물벼 180톤, 건조벼 9,713톤을 매입한다. 태풍과 수방아로 피해를 입은 벼에 대해서는 12월 중순에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은 신동진, 참동진, 해풍 등 일반벼 3품종과 가루쌀은 바로미2 품종이다. 검정을 통해 매입 대상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5년간 제외된다. 매입 대금은 통계청이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조사한 산지 평균 쌀값을 40kg 조곡 기준으로 환산해 결정된다. 익산시는 벼 매입 직후 중간정산금으로 포대당 4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차액금은 매입 대금이 결정되는 12월 말에 지급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시민 안전 위해 LED 보안등 270곳 설치

익산시가 어둠 밤길을 환하게 비추 주민들의 안전을 지킨다. 시는 11월 완료로 목표치 총사업비 3억 4,000만원을 투입해 LED 보안등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지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건의해 선정된 270개소다. 익산시가 설치 중인 엘디(LED) 보안등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길어 전기요금과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돼 경제적이다. 아울러 위치정보시스템(GPS) 방식의 점멸기는 보안등의 점소등 시간 오차와 고장률 감소에 효과적이다. 보안등 설치로 안전한 야간 통행 환경이 조성돼 우범지대 해소와 주민들의 밤길 통행 편의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익산시는 2만여 개의 보안등을 관리 중이며, 더욱 안전한 보행길 조성을 위해 매년 보안등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